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5월 10일, 태국 방콕 인근의 소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바트 심슨(아들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 공장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이었지만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까 봐 밖에서 문을 잠근 이유였다. 이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다쳤다. 참극이었다. 화재 진압 후 희생자를 수습하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렸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었다.

비극 이후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UN)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인형공장 희생자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은 이날을 기점으로 매년 4월 28일을 공식적인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하 산재노동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캐나다·미국·영국 등 19개 국가에서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2022년 기준), 추모행사를 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책을 제시한다. 한국은 노동계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산재 사망자는 무려 4만 8,814명. 꾸준히 안전과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산재로 병상에 누워계신 노동자의 쾌유를 빌며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